

‘핫 100’ 4위…방탄, 이번엔 방탄을 꺾다

〈타이틀곡 ‘온’〉

작년 4월 ‘…시’ 8위서 4계단 점프
자신 기록 넘고 진입 최고 순위
멤버별 수록 4곡도 ‘핫 100’ 진입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1위에 오른 그룹 방탄소년단이 싱글 차트인 ‘핫 100’에서 4위를 차지하며 거침없는 질주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가수의 ‘핫 100’ 차트 첫 진입기록으로는 최고 성적이다. 또 멤버별 솔로곡 등 수록곡도 순위에 올라 파워를 실감케 한다.

빌보드는 3일(이하 한국시간) 방탄소년단의 신곡 ‘온’(ON)이 ‘핫 100’(7일자)에서 4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온’은 방탄소년단이 지난달 21일 발표한 정규 4집 ‘맵 오브 더 솔:7(MAP OF THE SOUL:7)’의 타이틀곡이다.

이번 성적은 케이팝 가수 사상 최고 순위이자 방탄소년단이 자신들의 기록을 경신했다는 점에서 시선을 끈다. 앞서 싸이가 2012년 9월22일 ‘강남스타일’로 한국어 노래로는 처음으로 ‘핫 100’ 64위에 진입한 바 있다. 방탄소년단은 2018년 5월 ‘페이크 러브’로 10위에 오른 데 이어 지난해 4월 ‘작은 것들을 위한 시’로 8위를 기록한 후 이번에 4계단을 훌쩍 뛰어올라 4위에 안착했다. 이로써 세 번째 ‘핫 100’ 10위권에 세 곡을 진입시키며 놀라운 성과를 과시했다.



방탄소년단이 국제음반산업협회 3일 발표한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에서 팝의 디바 테일러 스위프트, 에드 시런, 포스트 말론, 빌리 아일리시, 퀸, 아리아나 그란데(사진 위부터 반호순) 이어 7위에 올랐다.

사진제공 | 국제음반산업협회

‘빌보드 200’과 함께 빌보드 메인 차트인 ‘핫 100’은 라디오 방송 횟수, 스트리밍 실적, 음원 판매 등을 종합해 순위를 매긴다. 노래의 대중적 인기도가 중요해 ‘빌보드 200’보다 경쟁이 더 치열하다. 빌보드에 따르면 ‘온’은 발표 첫 주 8만6000회 다운로드로 최신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1위에 올랐다. 역시 방탄소년단 곡으로는 최고 기록이다.

‘온’ 말고도 멤버별 솔로곡 등 수록곡도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정국의 ‘시차’와 지민의 ‘필터(Filter)’가 각각 84위와 87위를 차지했다. 선 공개해 화제를 모은 ‘블랙 스완’도 57위에 오른 것을 포함, 4곡이 ‘핫 100’에 올랐다.

이에 14일자 차트에 더욱 시선이 쏠린다. 빌보드로 “‘온’의 두 번째 뮤직비디오가 지난달 28일 새로 공개된 만큼 다음주에도 스트리밍 화력이 더욱 강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공개 1시간5분 만에 조회수 1000만 건(2일 현재 6762만건)을 넘겨 한국가수 역대 최단 1000만뷰 돌파 기록을 썼다. 뮤직비디오는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주어진 길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계속 전진하겠다’는 다짐을 담았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이날 국제음반산업협회(IFPI) 선정 ‘글로벌 아티스트 차트’ 7위를 차지, 한국은 물론 비영어권 가수 최초로 2년 연속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11

2020년 3월 4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3

‘코로나19’ 가짜뉴스에 연예인 곤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가짜뉴스’와 일명 ‘지라시’(사실정보지)가 번지는 가운데 연예인과 관계자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최근 이탈리아 밀라노 패션위크에 다녀온 가수 청하의 스태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행사를 찾았던 연기자 한예슬, 박민영, 뉴이스트이 황민현 등이 의심 받으며 지라시에 이름이 거론됐다. 이들 모두 아무런 증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지라시 확산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한편 스태프가 의심 증세를 보여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촬영을 중단한 tvN 드라마 ‘하이바이, 마마!’ 제작진은 해당 스태프가 음성 판정을 받아 3일 촬영을 재개했다.

가수 정영, 7세 연하 신부와 결혼



그룹 브라운아이드소울의 정영이 3일 결혼했다. 소속사 톱플레이뮤직은 이날 정영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7살 연하 신부와 결혼식을 올렸다고 밝혔다. 정영은 브라운아이드소울의 다른 멤버들은 물론 소속사 관계자 등 지인들도 초대하지 않고 ‘스몰 웨딩’으로 화족을 밝혔다.

이서진·아이유 모범 납세자로 선정

연기자 이서진과 가수 아이유가 모범 납세자로 대통령 표창을 받는다. 3일 국세청은 이 같은 사실을 알리며 납부 세액, 일자리 창출 기여도, 기부·봉사 활동 등을 평가해 두 사람은 모범 납세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초 납세자의 날인 3일 시상식에서 표창을 받을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행사가 축소돼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부터 표창장을 전달 받는다. 두 사람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거액의 성금을 내기도 했다.

연예인 거액 성금 기부, 어디에 쓰였나 했더니…

뉴스인사이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고 피해를 이겨내기 위한 스타들의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취약계층 등 이웃을 도우려는 손길에 팬들도 동참하고 있다. 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이 희망의 메신저가 된 셈이다. 이에 성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마스크·손소독제 등 1차 투입

연예인 기부는 평소 관계를 맺어온 단체, 혹은 관심 대상을 지원하는 단체 등을 통해 이뤄진다. 신민아·김유빈 커플이 참여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는 취약계층, 송강호와 김혜수가 성금을 내 ‘희망브릿지 전국 재해구호협회’는 재난 구호 모금전문기관으로 코로나19의 피해 국민, ‘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굿네이버스’는 아동을 지원한다. 성금 사용처는 대부분 마스크, 손

세정제, 소독제, 체온계 등 감염병 예방 1차 물품 확보에 긴급 투입한 뒤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지원으로 확대한다.

사랑의열매 손세은 미디어팀장은 3일 “바이러스 확산 방지와 피해 지원이 기준이다. 다중 사회복지시설이 대부분 폐쇄되거나 운영을 멈춰 독거노인이나 아동에게 방역용품과 생필품을 지원하고, 저소득가구 방역 작업도 돕는다”고 밝혔다.

강호동, 엄정아 등이 기부처로 택한 어린이재단의 황유미 커뮤니케이션팀장은 “대구·경북, 부산 지역 아동센터를 통해 650여 아동에게 마스크와 즉석밥 등 긴급지원 키트를 1차 지원했다”며 “꼭 아동 긴급지원에 먼저 써 달라는 연예인도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 긴급구호품과 생계비·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유재석이 지난해 태풍 미탁과 강원도 산불 이재민을, 이번엔 감염병 피해자를 위해

재해구호협회에 기부한 건 이 기관이 각종 재난과 재해가 일어나면 즉각적인 긴급 모금을 시작한 데 따른 것이다. 협회는 직접 피해자 지원을 위해 경증환자 생활치료센터용·방역 중심 자원봉사자용·방호복 중심 의료진용 키트를 각각 전한다. 재해구호협회 홍선화 대외협력실장은 “자가격리자용은 컵밥, 즉석죽, 통조림, 라면 등으로 꾸러진다”며 “중국 우한 교민이 머문 충남 아산·진천 시설에도 모포와 숙옷, 물티슈, 손톱깎이 등 생활물품 키트를 보냈다”고 밝혔다.

●스타의 성금…기부 문화 확대 ‘긍정적’

성금 기탁과 함께 당부의 말을 전하는 스타도 많다고 각 기관 측은 밝혔다. 홍실장은 “의료진 키트 마련, 어려운 이웃을 위한 마스크 구입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굿네이버스 커뮤니케이션팀 최성윤 씨도 “연예인이 요청한 대상과 지역, 물품에 맞춰 순차 지원한다”고 밝혔다.

스타들의 기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관심을 촉구하는 확실한 계기가 됐다. 사랑의열매 손세은 팀장은 “감염 확산 초기에 스타들의 기부가 이어져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분들이 많아 기부 규모도 커졌다”고 밝혔다. 실제로 방탄소년단과 강다니엘 등 스타들의 팬들이 코로나19 성금 기탁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엔터테인먼트부



교육 퍼즐

에듀윌

취업지원센터 운영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주택관리사 취업 전략은?...“실무실습 추천”

주택관리사는 다른 자격증에 비해 정년과 나이 제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다. 때문에 은퇴 후 재취업을 꿈꾸는 직장인들에게 각광받고 있다.

하지만 주택관리사는 자격증 합격이 중요한 만큼 그 이후 취업에 대비할 필요도 있다. 개업이 주를 이루는 공인중개사와 달리, 주택관리사는 약 500개 내외의 국내 위탁사를 통해 관리소장으로 취업하는 것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인이 혼자 취업시장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략을 짜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업무의 특성상 자격증 자체보다는 실무 교육이나 직접적인 실습 경험이 채용 담당자들에게 더욱 좋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한 채용 담당자는 “문제 해결능력과 친화력이 좋은 관리소장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을 관리하기 때문에 청렴함과 도덕성도 필수 요건”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이에 에듀윌은 ‘주택관리사 취업지원센터’를 통해 ‘성공 취업특강’을 공개했다. 서류 합격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은 물론 면접 시 스피치 요령과 주요 주택관리업체 현황 등 주요 공채사별 면접 가이드도 제공한다.

또한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과 공동주택 회계처리 지침에 대한 정보도 아낌없이 공개한다.

이 외에도 주택관리사 취업지원센터는 선배들을 통한 실습 경험과 실무 특강을 지원하며, 취업전략 설명회 다시보기도 제공한다. 주택관리사 공채, 수시채용 준비전략, 서류합격비법 등을 담고 있다. 에듀윌 주택관리사 취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단기 간이라도 실무실습을 경험해볼 것을 추천했다.

■ 스도쿠문제

		7		6		5		
				3	4	1		
4		1				3		6
	8			9			7	
5	1		8		3		4	2
	7			1			5	
9		8				2		5
				9	2	8		
		3	5		7			

9	2			4			7	3
4	8			1			6	2
			2		5			
		9				1		
1	6						8	7
		3				6		
			9		7			
3	9			6			2	5
7	4			3			9	1

■ 스도쿠정답

6	8	2	9	5	4	8	2	1
1	8	7	8	2	6	9	5	2
9	9	2	2	8	1	8	4	6
8	5	6	4	1	6	2	2	8
2	4	9	8	2	8	6	1	5
8	2	1	2	6	9	4	8	9
9	2	8	5	8	2	1	1	4
2	8	8	1	4	8	3	5	8
4	1	5	6	9	2	7	2	8
1	6	8	2	8	5	9	4	2
9	2	2	1	9	4	8	6	8
9	4	8	2	8	6	2	1	9
6	9	4	4	2	1	8	2	8
2	8	2	6	5	6	4	9	1
4	8	1	8	2	9	6	5	2
8	1	4	5	6	2	2	8	9
2	9	6	8	1	2	9	8	4
8	2	5	9	4	8	1	2	6